

# 經學家 段玉裁의 교감이론 “定是非, 求一是” \*

–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의 분석 –

김효신 \*\*

- 1. 서론
- 2.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의 분석
- 3. 段玉裁 교감이론의 특징

## 1. 서론

段玉裁(1735~1815)는 『說文解字注』라는 방대한 작업을 완성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 校勘家라기보다는 언어학자 혹은 經學家였다. 때문에 원래 문헌 교감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언어학과 문자학의 관점에서 중국 고대의 경전을 분석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경전 텍스트가 그 본래의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段玉裁는 스스로 구축한 고대 漢語의 음운 체계와 평생 쌓아온 문자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經典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그러한 의미에 맞추어 유행본의 문자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古典文獻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校勘을 바라보는데, 漢代 ‘校讎’<sup>1)</sup> 작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여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원시

\* 이 논문은 2017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진행된 인문한국사업단 제31회 HK워크숍 “동아시아 문헌학과 문헌학자Ⅱ”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같은 시기 완성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효신, 2017 『段顧論爭과 清代 校勘理論의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내용과 많은 부분 중복되어 있음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텍스트의 흔적을 찾는 데에 집중하였다. 阮元이 段玉裁에게 『十三經注疏校勘記』의 전체 감수를 맡긴 것도 이러한 段玉裁의 능력과 관점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段玉裁의 이러한 교감 방법은 전문 校勘家였던 顧廣圻(1766~1835)의 강력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한다. ‘不校校之’를 주장하는 顧廣圻의 입장에서 는,<sup>2)</sup> 段玉裁의 ‘異文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단일한 텍스트로 수렴하는 교감 방식’은 원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인 ‘오류의 흔적’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헌을 ‘지워 없애는 것’이며,

1)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중국 고전문헌의 존재방식에 따른 교감의 다양한 양상을 ‘校讎’와 ‘校勘’ 개념과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漢代의 ‘校讎’와 그 이후의 ‘校勘’은 텍스트의 형성과 전승 형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다시 말해, 고전문헌이 원시 텍스트(prototext)에서 문자 텍스트1(필사본)로 정착할 때의 과정을 漢代 劉向이 말한 ‘校讎’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문자 텍스트1(필사본)이 문자 텍스트2(목판본)로 그 형태를 변모할 때 진행된 작업을 唐宋代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校勘’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청대 교감이론은 이와 같은 漢代의 ‘校讎’와 唐宋代의 ‘校勘’ 과정을 새롭게 인식하여 고전 문헌의 전승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원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물론 清代를 포함한 역대의 학자들이 ‘校讎’와 ‘校勘’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그 둘을 동의어로 이해하여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시텍스트에 대한 ‘校讎’와 문자텍스트에 대한 ‘校勘’을 구분하면, 이를 통해 고전문헌의 전승과정에서 교감이 어떠한 양상과 작용을 하였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그 양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교감”과 구별 하기 위해서, 문헌의 전승과정에서 그 개념을 고찰할 때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校讎’ · ‘校勘’으로 표기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효신, 앞의 논문 참조.

2) 顧廣圻는 비교적 짧은 시절부터 校勘이 문헌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주의하였다. 올바른 문헌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수행하는 校勘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오류가 생성 된다는 역설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역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不校校之’이다. 顧廣圻가 주장하는 ‘不校’는 소극적으로 ‘교감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校勘을 하되 그 校勘의 성과로 선부르게 원래의 텍스트를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백한 오류라 하더라도 교감자는 그 원문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감자의 작업성과를 주석이나 교감기의 형태로 기록한다. 이것이 ‘校之’이다. ‘不校’를 통해 그대로 남겨둔 오류는 읽는 사람들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축발할 수 있고, 원문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해당 부분의 여러 異文을 나열하고 교감자의 판단을 제시하는 방법은 문헌의 진정한 모습을 사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顧廣圻가 주장하는 ‘不校校之’이다. 顧廣圻, 2007 「思適寓齋圖自記」; 「文苑英華辨證十卷校本」; 「禮記考異二卷(陽城張氏刻本)」; 「儀禮疏」五十卷宋刻本」『顧千里集』, 北京: 中華書局 등 참조.

특히 그것은 “校勘”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위험한 행위인 것이다.

개별 문헌에 대한 교감 결과에 대해서 顧廣圻와 치열한 論戰을 벌이면서 (1806~1809),<sup>3)</sup> 段玉裁는 문헌 교감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바로 嘉慶 13년(1808)에 발표한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이 段玉裁가 자신의 교감이론의 핵심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논문이다.

이 글은 제목으로만 보자면 편지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그간 자신이 행했던 교감실천 및 여러 편지나 찰기를 통해 표출했던 “교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총결한 글이다. 더 직접적으로는 顧廣圻 와의 논쟁 중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공개서한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정리된 段玉裁의 이론은 ‘理校法’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켜, 顧廣圻의 ‘對校法’과 함께 청대 교감학의 주요 방법론 혹은 서로 대가 되는 유파로서 자리하게 한다. 또한 청대 고전문헌 교감작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한 이론으로서 자리를 잡는 동시에 段玉裁를 문헌학가 혹은 교감학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해주었다.<sup>4)</sup> 현재까지도 ‘교감의 방법’ 및 ‘교감의 개념’ 등에 대해 논의할 때, 이 글은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주요한 글이다.

## 2.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의 분석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은 크게 아홉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是非” · “底本” · “立說” 등 段玉裁 교감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을 간명하게 정의한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다섯 가지 예시를 들어 고전문헌의 중충구조를 설명하면서, 고전문헌의 교감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양상을 다

3) 清代『十三經注疏校勘記』와 段玉裁의 관계 및 段玉裁 · 顧廣圻 사이의 교감이론 논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효신, 앞의 논문 참조.

4) 董蓮池, 2006 「‘理校’의巨人：校勘學理論的貢獻」『段玉裁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42-256면 참조.

양하게 소개한다.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단락에서는 결국 “底本의 시비”를 넘어서 “立說의 시비”를 판정하여 “유일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교감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교감의 본질과 목적을 이론적 언어로 밝힌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段玉裁가 구축한 교감이론의 문제의식을 추적하고자 한다.

### 1) 첫 번째 단락: “底本”과 “立說”的 시비판정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의 첫 번째 단락에서 段玉裁는 교감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는 특정한 판본에 의거하여 謄脫이 없이 똑같이 글자를 고치는 것이고, 둘째는 底本의 是非를 판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立說의 是非를 판정하는 것이다.

校書의 어려움은 어떤 책과 똑같이 글자를 고치면서[照本改字] 謄脫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不謄不漏]이 아니다. 그 是非를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

是非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底本의 是非와 立說의 是非이다. 반드시 먼저 그 底本의 시비를 판정한 이후에야 그 立說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으면 번잡하고 혼란스러워진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려다가 더욱 엉키게 하고, 계산을 할 때 법칙과 실재가 뒤섞여 혼란을 야기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다.

底本이란 바로 책을 저술한 사람이 의거한 經典의 필사본[稿本]이고, 立說이란 바로 책을 저술한 사람이 판단한 經典의 의미맥락[義理]이다.<sup>5)</sup>

段玉裁는 “어떤 책과 똑같이 글자를 고치면서 謄脫이 생기지 않게 하는” 교감의 첫 번째 층위는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언급은 顧廣圻의 ‘不校校之’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융통성 없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염송한다[照本宣科]”는 성어를 변형하여 “어떤 책과 똑같이 글자를 고친다[照本改字]”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교감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5)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經韻樓集』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校書之難, 非照本改字不謄不漏之難也, 定其是非之難, 是非有二, 曰: 底本之是非, 曰: 立說之是非, 必先定其底本之是非, 而後可斷其立說之是非, 二者不分, 謬謬如治絲而棼, 如算之淆其法實而瞀亂乃至不可理, 何謂底本? 著書者之稿本是也, 何謂立說? 著書者所言之義理是也.”

배제하고 기존의 텍스트를 틀리지 않게 베끼는 교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段玉裁의 입장에서 그러한 방법은 저급한 수준의 교감이라 할 수 있다.

段玉裁가 보기에 교감이 어려운 이유는 그 옳고 그름을 판정[定是非]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비판정에는 다시 底本과 立說이라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段玉裁는 이 두 가지 층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底本과 立說을 혼동하면 “엉킨 실타래를 풀려다가 더욱 엉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서 “엉킨 실타래”가 혼란스러운 텍스트 상황을 비유한다면 “푼다”는 행위는 교감을 가리킨다. 底本과 立說을 구분하지 못하는 교감은 혼란스러운 텍스트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段玉裁가 말한 底本은 일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經典의 중층구조를 구성하는 텍스트라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漢代 ‘校讎’를 통해 經文이 확립된 이후 注와 疏를 작성하는 데에 이용한 經典 텍스트를 가리킨다. 盧文弨는 經典의 심층구조를 설명하면서 “옛날부터 전래된 經典은 모두 하나의 傳本이 아니다. 陸德明이 의거한 傳本과 賈公彥·孔穎達이 의거한 傳本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sup>6)</sup> 段玉裁 역시 顧廣圻의 『撫本禮記鄭注考異』를 비판하면서 쓴 글 가운데 하나인 「周人卒哭而致事經注考」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宋代 사람들이 疏를 經注와 한데 합하면서 이 疏를 저 經注本에 덧붙여버렸다. 이 때문에 經注와 孔穎達의 疏가 합치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반드시 孔穎達의 疏를 알아야 孔穎達이 의거한 經注本을 알 수 있고, 반드시 皇侃의 疏를 알아야 皇侃이 의거한 經注本을 알 수 있다. 반드시 經注의 義理와 맥락을 찾아 음미할 줄 알아야 孔穎達이 의거한 經注가 옳고 皇侃이 의거한 經注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sup>7)</sup>

6) 盧文弨, 1990 「重雕經典釋文緣起」, 『抱經堂文集』卷2, 北京: 中華書局 “古來所傳經典, 類非一本。陸氏所見, 與賈孔所見本不盡同”: 김효신, 앞의 논문 「3.2.2. 표면과 심층구조의 혼란: ‘欲省兩讀, 翻致兩傷’」 참조.

7) 段玉裁, 2008 「周人卒哭而致事經注考」, 『經韻樓集』卷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宋人以疏合經注者, 以此之疏合彼之經注本, 故經注與孔疏不合, 必知孔疏, 而後知孔所執之經注本, 必知皇疏, 而後知皇所執之經注本, 必知尋味經注之義理脈絡, 而後可以知孔之經注是, 皇之經注非也.”

이곳에서 段玉裁는 盧文弨가 제시한 “의거한 전본”이라는 개념을 “底本”이라는 명칭으로 더욱 명확하게 가다듬었다.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에서는 다시 底本을 “책을 저술한 사람이 의거한 古典의 菲사본[稿本]”으로 정의한다. 문제는 鄭玄·皇侃·陸德明·孔穎達·賈公彥 등 注疏를 작성한 학자들의 底本이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한 底本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의 經典 통행본에 남아 있는 여러 흔적을 통해 여러 가지 底本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底本의 시비판정을 통해 통행본의 해당 經文과 注疏 작성자가 이용한 底本이 동일한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段玉裁는 “底本의 시비판정”이라 불렀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교감이라면 이러한 “底本의 시비판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段玉裁의 주장이다. 底本의 시비를 판정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立說의 시비”까지 판정해야 한다. 段玉裁는 “立說”을 “책을 저술한 사람이 판단한 經典의 의미맥락”으로 정의한다.

唐代 이전의 注疏 작성자는 자신이 의거한 底本을 바탕으로 經文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설하였는데, 그러한 여러 해설 사이에는 수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후대의 校勘家는 그러한 여러 가지 注疏를 비교·검토하여 그 가운데 가장 올바른 의미맥락[義理]을 판정해야 한다. 또 그렇게 판정한 의미맥락에 따라 문자를 校訂하는 것이 바로 校勘의 최종적 차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立說의 시비판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段玉裁는 嘉慶 15년(1810)에 쓴 「與胡孝廉世琦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돌이켜보면 책을 읽을 때에는 텍스트[本子]의 시비판정과 작자의 시비판정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시비는 翻校하여 판정할 수 있지만, 작자의 시비는 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慎修 선생(江永)과 스승님 東原 선생(戴震)께서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經學에 종사하는 데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깊고 넓게 알기[淹博]가 어렵다. 둘째, 식견을 바탕으로 판단하기[識斷]가 어렵다. 셋째, 자세히 살펴서 확정하기[審定]가 어렵다.”

저는 텍스트의 시비를 판정할 때는 깊고 넓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작자의 시비를 판정할 때는 식견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과 자세히 살펴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東原 선생의 학문은 넓게 아는 데에 힘썼다기보다는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에 힘썼기 때문에 넓게 살피는 것만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東原 선생님의 판단과 확정은 아마도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넘어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sup>8)</sup>

立說의 시비판정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식견을 바탕으로 자료의 가치를 면밀히 평가하여 가장 올바른 의미맥락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비록 그 작업이 굉장히 난해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학술적 능력과 자의식을 갖춘 학자라면 마땅히 스스로 “立說의 시비판정”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底本의 시비판정”은 “立說의 시비판정”的 전제조건이다. 段玉裁 역시 “반드시 먼저 底本의 시비를 판정한 이후에야 義理의 시비를 정할 수 있으며, 경솔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sup>9)</sup>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에서 段玉裁가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은 “底本의 시비”와 “立說의 시비”를 혼동하여 마구 뒤섞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 서로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는 注疏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할 근거가 뒤엉키기 때문이다.

段玉裁가 底本과 立說의 명확한 구분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 논쟁을 벌였던 顧廣圻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段玉裁의 판단에서 顧廣圻가 주장한 ‘不校校之’의 교감은 대체로 “어떤 책과 똑같이 글자를 고치면서 謏脫이 생기지 않게 하는” 단순한 작업이거나, 기껏해야 “底本의 시비”만을 판정하는 교감에 지나지 않았다. 顧廣圻는 “經典의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여러 傳本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 이것으로 저것을 가벼이 고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sup>10)</sup> 이것이 바로 “底本의 시비판정”이다.

8) 段玉裁, 2008 「與胡孝廉世琦書」『經韻樓集』卷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顧讀書有本子之是非, 有作書者之是非。本子之是非, 可讎校而定之。作書者之是非, 則未易定也。慎修先生、東原師皆曰: 從事經學, 皆有三難, 淹博難, 識斷難, 審定難。僕以爲定本子之是非, 存乎淹博; 定作書者之是非, 則存乎識斷、審定。東原師之學, 不務博而務精, 故博覽非所事, 其識斷、審定, 蓋國朝之學者未能或之過也。”

9) 段玉裁, 2008 「周人卒哭而致事經注考」『經韻樓集』卷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必先定底本之是Non, 而後可定義理之是Non。狂趨之人, 何足與於此!”

10) 顧廣圻, 2007 「顧千里第二札」『顧千里集』卷7, 北京: 中華書局 “凡經說之有不同而不容輕用彼改此者, 何勝一二! (중략) 不過據此欲聽其不同, 而不容輕用彼改此而已。有何必不是者?”

段玉裁는 顧廣圻가 “立說의 시비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底本의 시비판정”의 차원에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은 “底本”的 차원을 넘어서 그 “立說”的 옳고 그름을 판정하여 문자를 考訂하였기 때문에 顧廣圻의 비판은 성립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에서는 다섯 가지의 예시를 통해 이러한 底本과 立說의 시비를 판정할 때 발생하는 난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예시는 경전의 중충적 구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텍스트의 오류, 그러한 오류를 校訂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2) 두 번째 단락: 『周禮』「冬官·輪人」“下廸/不廸”

『周禮』「冬官·輪人」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수레바퀴를 관찰하는 것은 바퀴가 고르게 아래로 향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望而視其輪, 欲其慎爾而下廸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그런데 賈公彥의 疏에서는 “‘下廸’라고 말한 것은 바퀴살[輻]이 위에서부터 바퀴중심에 이르기까지 짹을 이루어 서로 대응하여 똑바르게 되어 있어서 옆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下廸’라고 한 것이다 [云下廸者, 謂輻上至轂, 兩兩相當, 正直不旁廸, 故云下廸也]”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賈公彥의 疏에서 “正直不旁廸[똑바르게 되어 있어 옆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보면 “下廸”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不廸”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段玉裁는 賈公彥이 본 『周禮』 經文은 “下廸”가 아니고 “不廸”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唐石經 이하 여러 판본의 經文이 “下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宋代의 注疏를 합刻한 편집자들이 賈公彥의 疏를 “下廸”로 바꾸었다고 분석한다.

段玉裁는 賈公彥 疏의 내용을 분석하여 “不廸”로 되어 있던 底本을 재구성하였다. 그래서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는 賈公彥 疏의 “云‘下廸’者”와 “故云‘下廸’也”라고 되어 있는 것을 “云‘不廸’者”와 “故云‘不廸’也”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1)</sup> 이것이 바로 “底本의 시비판정”이라 할 수 있다.

11) 阮元, 1995 「冬官·輪人」『禮記注疏校勘記』(文選樓本) 繢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又按段玉裁云, 疏云, ‘不廸者, 謂輻上至轂, 兩兩相當, 正直不旁廸, 故云不廸也’. 然則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經文의 “下廸”를 “不廸”로 고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下廸”的 底本과 “不廸”的 底本 가운데 어느 것이 전체적인 의미의 맥락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段玉裁는 “輪”·“輻”·“牙”·“轂”的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여 “下廸”로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작업이 곧 “立說의 시비판정”이다.

그렇다면 『唐石經』과 각 판본의 經에서 “下”라고 쓴 것이 옳으며, 賈氏本에서 “不”이라고 쓴 것은 틀렸다. 이것이 바로 義理의 시비를 판정하는 것이다. 만일 미숙한 자들이 疏文의 “下廸”的 오류를 교감하여 “不廸”라고 고치고 다시 疏文의 “不廸”로 經文의 “下廸”를 고친다면, 賈公彥 疏의 底本은 얻었으나 의리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게 된다.<sup>12)</sup>

흥미로운 점은 段玉裁가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李學勤이 主編한 北京大學 『十三經注疏』 整理本에서는 經文의 “下廸”를 다시 “不廸”로 고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만다.<sup>13)</sup> 이는 여전히 段玉裁가 말한 “立說의 시비판정”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착오라고 할 수 있다.

### 3) 세 번째 단락: 『禮記』「王制」“四郊/西郊”

『禮記』「王制」의 “虞庠은 나라의 西郊에 있다[虞庠在國之西郊]”는 구절을 통해 底本과 立說의 시비를 밝히고 있다. 周代 虞庠의 위치를 “四郊”라고 한 底本과 “西郊”라고 한 底本이 있었다. 注疏의 작성자들이 각각 어떠한 底本에 의거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底本의 시비판정”이라면,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의미맥락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立說의 시비판정”이다.

---

經文‘下廸’本作‘不廸’甚明, ‘下’乃譌字耳。今自唐石經已下經文皆誤, 而疏中二‘不廸’字亦經淺人改爲‘下廸’, 不可不正也。”

12)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倘有淺人校疏文‘下廸’之誤, 改爲‘不廸’, 因以疏文之‘不廸’改經文之‘下廸’, 則賈疏之底本得矣, 而於義理乃大乖也。”

13)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2000 「冬官·輪人」 『周禮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望而眡其輪, 欲其慎爾而不廸也。”

顧廣圻는 「王制」의 “西郊”를 謔誤라는 이유로 “四郊”로 고치는 段玉裁의 행위를 “원본을 지워 없애는 것[抹殺之]”이라 비난하였다. 하지만 段玉裁의 체계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顧廣圻의 비판은 “底本의 시비” 차원에 불과하다. 段玉裁가 “四郊”를 주장한 것은 “立說의 시비판정”을 거친 결과였기 때문이다.<sup>14)</sup>

#### 4) 네 번째 단락: 『春秋左傳』昭公 20年條 “皆死/皆未死”

『春秋左傳』昭公 20년에 “衛나라 군주가 北宮喜에게 貞子라는 시호를 내리고析朱鉏에게 成子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齊씨 가문의 묘지를 그들에게 하사했다”는 구절이 있다.<sup>15)</sup> 문제가 되는 것은 杜預의 注이다. 杜預는 이 구절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죽고 나서 시호와 묘지를 하사한 것으로서, 『左傳』에서는 그 둘이 죽은 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皆死而賜謚及墓田, 傳終而言之]”고 해설하였다.

문제는 이 杜預의 해설이 판본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宋本 · 宋殘本 · 足利本에는 “죽고 나서[皆死]”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 통행본이던 宋十行本 · 『刊正九經三傳』本 · 淳熙 宗德堂本 · 王應麟이 본 판본에는 “皆未死”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杜預의 注는 “皆死”와 “皆未死”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4) “四郊/西郊”와 관련한 문제는 段玉裁와 顧廣圻의 교감이론 논쟁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西郊를 주장한 顧廣圻과 四郊를 주장한 段玉裁는 치열하게 논쟁을 전개하였는데, ‘四’ 혹은 ‘西’와 같은 문자를 교감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周代의 학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었고, 나아가 전반적인 禮制의 문제로 논의가 확대되었다. 또한 학술적 토론뿐만 아니라 학문적 태도와 인품의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서 논쟁은 인신공격의 모습을 보이고, 사승관계라 할 수 있었던 段玉裁와 顧廣圻가 서로 관계를 끊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양쪽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四郊’와 ‘西郊’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周代의 학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두 학자 사이의 갈등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是非의 판정을 떠나 청대 古典文獻 校勘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다양한 접근을 축발하였다. 논쟁을 통해 校勘의 본질과 목적, 古典文獻 텍스트의 역사성과 중층성, 校勘의 구체적 방법론, 개별적 校勘 성과에 대한 是非 판정, 校勘 결과의 표현방식 문제 등 교감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사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효신, 앞의 논문 「4.2.2. ‘四郊/西郊’ 논쟁」 참조.

15) “閏月戊辰, 殺宣姜, 衛侯賜北宮喜謚曰貞子, 賜析朱鉏謚曰成子, 而以齊氏之墓予之.”

답하자면 “皆死而賜”가 옳다. 杜預는 두 사람이 宣姜을 살해할 때는 살아있었고 나중에 죽은 후에 시호와 묘지를 하사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左傳』에서는 그들이 죽은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傳終而言之]”라고 설명한 것이다.

만약 “모두 죽지 않았는데 하사한 것[皆未死而賜]”이라고 쓴다면, “『左傳』의 그들이 죽은 후의 일을 말하고 있다[傳終言之]”는 설명은 앞의 해설과 모순을 일으키는 군더더기[贅辭]가 된다. 그러므로 일부 판본에서 “未死而賜”라고 쓴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죽고 나서 하사하였다[死而賜]”는 經文을 옳게 이해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春秋』가 일반적인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經文에서 이 일을 기록한 것은 그것이 “죽지 않았는데 하사하였다[未死而賜]” 때문이다.

“죽고 나서 하사하였다[死而賜]”라고 하면 杜預 注의 底本은 얻은 것이지만, 그 의미맥락은 실제로 틀린 것이다. “죽지 않았는데 하사하였다”고 한다면 杜預 注의 底本은 옳게 되지만, 의미의 맥락에 합치한다.<sup>16)</sup>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底本의 시비”와 “立說의 시비”를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皆死”라고 한다면 杜預의 해설을 옳게 쓴 것으로서 “底本의 시비판정”的 차원에서는 옳다. 杜預 역시 北宮喜와 析朱鉏에게 시호와 묘전을 내렸다는 기록이 이상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左傳』에서는 그들이 죽은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傳終言之]”는 설명을 덧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杜預의 설명은 옳지 않다. 段玉裁는 일반적인 일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左傳』의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 후, 北宮喜와 析朱鉏가 살아있을 때 시호와 묘지를 하사한 것이 맞다고 파악한다. 이렇게 注疏 작성자의 해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의미의 맥락을 구축하는 것이 “立說의 시비판정”이다.

### 5) 다섯 번째 단락: 『毛詩』「邶風·谷風」“渭濁/其濁/謂濁”

『毛詩』「谷風」의 “涇水는 渭水 때문에 흐려 보인다[涇以渭濁]”에 대해 鄭玄의箋에서는 “涇水는 渭水와 비교되어 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涇水以有渭, 故見謂濁]”로 해설한다. 孔穎達의 疏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曰, ‘皆死而賜’者是也. 二人時未死也, 既死而賜, 故要其終而言之. 若云皆未死而賜, 則‘傳終言之’句不可接而爲贅辭矣. 是一本作‘未死而賜’者, 非也. 然則, 死而賜, 於說經是與? 曰, 『春秋』常事不書, 書者, 爲其未死而賜也. 云‘死而賜’, 則杜注之底本得矣, 而於義理實非也. 云‘未死而賜’, 則杜注之底本失矣, 而於義理有合也.”

사람들은 淹水를 渭水와 비교하여 흐리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는 남편이 새장가를 들어 옛날 부인을 새신부와 비교하면서 싫어하는 것과 같다.

[涇水言以有渭, 故人見謂已濁, 猶婦人言以有新婚, 故君子見謂已惡也.]

이를 통해 孔穎達의 疏가 鄭玄 箋의 “故見謂濁”을 인용하여 “故人見謂已濁”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顏師古 『五經定本』의 鄭玄 箋에서는 “故見其濁”으로 쓰고 있다. 또한 『經典釋文』에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옛날의 傳本에도 “故見渭濁”으로 되어 있다. 어떤 傳本에서는 “渭”를 “謂”로 쓰고 있는데, 이는 후대 사람들이 고친 것일 뿐이다.

[“故見渭濁”, 舊本如此. 一本“渭”作“謂”, 後人改耳.]

다시 말해, 鄭玄 箪의 동일한 구절에 관하여 “故見謂濁” · “故見其濁” · “故見渭濁”이라고 쓴 세 가지 底本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옳은 것일까? 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正義』에서 “謂”라고 쓴 것이 옳다. 예컨대 『釋文』에서 “見渭”라고 쓴 것은 통하지 않고, 『定本』의 “見其”라고 쓴 것 또한 예전에 “渭”라고 쓴 것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친 것일 뿐이다.

“見謂濁”이라고 쓰면 글의 맥락이 쉽고 명백해진다. 그런데 陸德明은 오히려 “見謂”가 잘못이고 “見渭”가 옳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반대로 孔穎達의 疏文에서 의거한 底本에는 틀림없이 “見謂”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의미맥락의 是非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반드시 『釋文』에 의거하여 『正義』를 고쳐야 한다면, 결국 孔穎達의 底本은 잃게 되고 그 의미맥락도 크게 어긋나게 된다.<sup>17)</sup>

이곳에서 段玉裁는 陸德明 · 賈公彥 · 孔穎達의 底本을 재구축하고, 다시 의미맥락을 기준으로 그 底本의 우열을 판단하고 있다. “底本의 시비판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立說의 시비판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17)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正義』作‘謂’是也。如『釋文』作‘見渭’，則不可通；『定本』作‘見其’，亦因舊作‘渭’不可通而改之耳。作‘見謂濁’，文理易憤；陸德明反說‘見謂’為非，‘見渭’為是。苟知孔氏疏文底本作‘見謂’不誤而義理之是非亦定矣。倘有必據『釋文』以改『正義』，則孔疏之底本失，而於義理乃大乖也。”

### 6) 여섯 번째 단락: 『儀禮』「士冠禮」·『禮記』「冠義」“卿大夫/鄉大夫”

『儀禮』「士冠禮」와 『禮記』「冠義」에는 “폐백을 가지고서 鄉大夫와 鄉先生을 찾아뵙는다[以摯見於鄉大夫、鄉先生]”라는 구절이 있다. 『經典釋文』의 「禮記音義」에서는 “鄉大夫와 鄉先生의 ‘鄉’은 모두 音이 ‘香’이다”라고 설명한다.<sup>18)</sup> 그런데 『儀禮』「士冠禮」에서 賈公彥은 “經에서 卿大夫를 말하고 士는 말하지 않았다 [經言卿大夫, 不言士]”고 설명하고 있으며, 『禮記』「冠義」에서 孔穎達은 “조정의 卿大夫를 일컫는다[謂在朝之卿大夫也]”는 疏를 달고 있다. 역시 이곳에서도 陸德明과 賈公彥·孔穎達의 底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段玉裁는 우선 “鄉大夫”的 두 가지 의미를 밝힌다. 첫 번째는 『周禮』「地官」에서 “鄉大夫”的 직무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의미이다.<sup>19)</sup> 이 때 “鄉大夫”는 卿의 지위이고, 그 屬官인 “州長”·“黨正”·“族師”·“閭胥”를 관리한다. 두 번째는 『儀禮』「鄉飲酒禮」에 보이는 “遵者”的 의미이다. 鄭玄은 注에서 “遵者는 同鄉 출신 가운데 벼슬이 大夫에 이른 자이다[遵者，謂此鄉之人仕至大夫者也]”로 해설하고 있다.<sup>20)</sup> 鄭玄은 비록 『儀禮』와 『禮記』에서 “鄉先生”만을 해설하고 “鄉大夫”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달고 있지 않지만, “동향 출신 가운데 卿大夫의 벼슬로 致仕한 사람”이라는 “鄉先生”的 정의를 통해 “동향 출신 가운데 卿大夫의 벼슬에 올라 아직 致仕하지 않은 사람”이 “鄉大夫”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관례를 올리고서 이러한 “鄉大夫”와 “鄉先生”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 것이 禮이다. 이러한 段玉裁의 판단에 따르면 『儀禮』「士冠禮」나 『禮記』「冠義」에서 “卿大夫”가 아니라 “鄉大夫”로 쓰는 것이 옳다.

18) 陸德明, 2012 『禮記音義·冠義』『經典釋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鄉大夫鄉先生”條: “鄉大夫鄉先生，並音香，注同。”

19) 『周禮』「地官」“鄉大夫之職，各掌其鄉之政教禁令。(中략) 三年則大比，攷其德行、道藝，而興賢者、能者。鄉老及鄉大夫帥其吏與其衆寡，以禮禮賓之[鄉大夫의 직분은 鄉의 정무와 교육, 금령을 관장한다. (중략) 3년마다 종결하여 그 덕행이나 학문과 기예를 살펴 어진 이와 능력 있는 자를 친거한다. 鄉老와 鄉大夫는 소속 관리와 관할 백성의 많고 적은 인원을 거느리고 향음주의 예로써 어진이나 능력 있는 자를 빙객으로 대우한다].”

20) 段玉裁는 이 注의 출처를 「鄉射禮」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鄉飲酒禮」에 보인다. 『儀禮』「鄉飲酒禮」“賓降席，北面。主人降席，阼階上北面。介降席，西階上北面。遵者降席，席東、南面。” 鄭玄注: “皆立，相須微俎也。遵者，謂此鄉之人仕至大夫者也。今來助主人樂賓，主人所榮而遵法者也。因以為名。或有無，來不來，用時事耳。今文遵爲僕，或爲全。”

만일 賈公彥과 孔穎達이 쓴대로 ‘卿大夫’라고 한다면, 조정에 있는 卿大夫이니 그들 전부를 찾아가 볼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陸德明이 옳고 賈公彥, 孔穎達이 틀린 것이다. 지금 만약 賈公彥과 孔穎達의 底本에 의해 陸德明이 음이 ‘香’이라고 했던 설을 고치고, 두 經을 고쳐 ‘卿大夫’라고 쓴다면, 賈公彥과 孔穎達이 의거한 底本은 얻지만 그 의미맥락은 크게 어긋나게 된다.<sup>21)</sup>

盧文弨는 『經典釋文』을 중각하면서 쓴 「考證」에서 “鄉大夫”를 “卿大夫”라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段玉裁는 卢文弨와 같이 “卿大夫”로 쓰면 단지 賈公彥·孔穎達의 底本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사실 이곳에서 段玉裁가 “鄉大夫”와 “卿大夫”的 문제를 제기한 것도 顧廣圻를 겨냥한 것이었다. 顧廣圻는 『撫本禮記鄭注考異』에서 卢文弨가 “卿大夫”가 옳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였는데, 그 이전에 段玉裁가 卢文弨의 주장을 반박한 적이 있었다. 段玉裁는 顧廣圻가 자신의 의견을 표절했다고 생각했다.

#### 7) 일곱 번째 단락: “以賈還賈, 以孔還孔, 以陸還陸, 以杜還杜, 以鄭還鄭”

이 단락에서 段玉裁는 앞의 다섯 가지 예시를 통해 “底本의 시비판정”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底本의 차원에서 한 가지 글자로 통일을 하면 각 층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앞의 다섯 가지 예시를 가지고 논해보자.

① 현재 통행본의 疏에서 “下廸”라고 쓴 것에 의하면 賈公彥을 이해할 수 없다. 賈公彥이 “不廸”라고 쓴 것에 의하여 經文을 고친다면 「考工記」의 經文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② 「祭義」의 今疏에서 “四郊虞庠”이라고 한 것에 의하면 孔穎達의 해설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孔穎達에 따라 “西郊”라고 고치면 「祭義」와 「王制」의 經·注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③ “皆未死而賜謚”라고 쓴다면 杜元凱의 해설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皆死而賜謚”를 따르면 다시 『左傳』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④ 疏에서 ‘見謂濁’이라고 쓴 것에 의하면 陸德明을 이해할 수 없다. 『釋文』에서

21)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如賈、孔作‘卿大夫’, 則在朝之卿大夫其可全見與? 是以陸是而賈、孔非也。今若依賈、孔之底本改陸氏音‘香’之說, 改二經作‘卿大夫’, 則賈、孔之底本得矣, 而於義理乃大乖也。”

‘見渭濁’이라고 쓴 것을 따르면 鄭箋을 이해할 수 없다.

⑤ 두 가지 疏를 고쳐서 ‘鄉大夫’라고 쓰면 賈公彥과 孔穎達을 이해할 수 없다. 疏에 따라 經文과 『釋文』을 고쳐 ‘卿大夫’라고 쓰면, 經文과 『釋文』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經典을 교감하는 방법은 반드시 賈公彥의 底本을 賈公彥에게 돌려주어야하고, 孔穎達의 底本을 孔穎達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陸德明의 底本을 陸德明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杜預의 底本을 杜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鄭玄의 底本을 鄭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각각 그 底本을 얻은 이후에 그 의미맥락의 是非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經文의 底本을 판정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야 經文의 의미맥락을 확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注·疏·釋文의 底本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 옛사람들의 뜻을 왜곡하게 된다. 또한 그 立說의 是非를 판단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지금 사람들 을 잘못 이끌게 된다.<sup>22)</sup>

이곳에서 “以賈還賈, 以孔還孔, 以陸還陸, 以杜還杜, 以鄭還鄭”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등장한다.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經典을 교감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작업은 각 충위에서 의거한 底本을 분리하여 재구성하는 일이다. 段玉裁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以某還某”的 형식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각 충위의 底本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모순된 설명이 얹히고 설켜 결국 經典을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각 충위의 底本을 분리하여 재구성해야 각각의 의미맥락을 판정할 수 있고, 다시 注·疏 충위의 의미맥락을 종합하여 經文의 底本을 판정한 후에 전체적인 의미맥락을 확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맥락에 따라 옳은 문자를 제시하는 것이 교감의 목적이자 임무이다.

22)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就五事論之, 依今疏作‘下迺’而賈不受也, 依賈作‘不迺’以改經而考工經不受也; 依祭義今疏‘四郊虜庠’而孔不受也, 依孔作‘西郊’而祭義、王制經、注不受也; 依‘皆未死而賜謚’而杜元凱不受也, 依‘皆死而賜謚’, 又恐左公不受也; 依疏作‘見謂濁’而陸不受也, 依『釋文』作‘見渭濁’而鄭箋不受也; 改二疏作‘鄉大夫’而賈、孔不受也, 依疏以改經及『釋文』作‘卿大夫’而經、『釋文』不受也. 故校經之法, 必以賈還賈, 以孔還孔, 以陸還陸, 以杜還杜, 以鄭還鄭, 各得其底本, 而後判其義理之是非, 而後經之底本可定, 而後經之義理可以徐定. 不先正注、疏、釋文之底本, 則多謬古人; 不斷其立說之是非, 則多誤今人.”

## 8) 여덟 번째 단락: 注疏 合刻이 야기한 오류

이 단락에서는 宋代에 注疏를 合刻하면서 經典의 중층적 구조가 하나의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때 각 층위의 동일하지 않은 底本을 마구 뒤섞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經典의 각 층위의 底本을 분리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도 注疏 합각으로 인해 여러 저본이 한 텍스트로 녹아들었기 때문이다.<sup>23)</sup>

宋代에 『正義』와 『經典釋文』을 經과 注에 합한 아래로, 원래 동일하지 않은 글자를 일률적으로 고쳐서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익히기만 하는 사람들[學而不思者]이 나이를 먹어도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고, 經을 교감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역시 올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經注·正義·釋文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합각한 注疏本은 편리한 듯해도 쉽게 미혹되게 하여, 오래도록 經典의 賊이었으나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예를 들어 최근 顧廣圻는 「祭義」의 疏를 교감하면서 “四郊”를 “西郊”라고 고쳤는데, 이것으로 孔穎達의 底本은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鄭玄注의 “四郊”를 고쳐 “西郊”라 하고 그 근거로 「王制」의 經注에서 “西郊”로 되어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孔穎達의 底本만 알 뿐 鄭玄의 底本은 모르는 것이다. 鄭玄의 底本을 읽는다면 經文의 底本 또한 읽게 되니, 周나라 제도는 四郊에 小學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게 된다.

또한 내가 예전에 劉台拱과 盧文弨가 賈公彥·孔穎達의 疏를 근거로 經文의 “鄉大夫”를 “卿大夫”라 고친 것을 자세히 분석한 적이 있었다. 顧廣圻는 내 의견을 표절하여 『撫本禮記鄭注考異』에 수록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宋本에서 謗字가 생긴 것이지 賈公彥은 원래 “鄉大夫”로 옮겨 썼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것은 또한 經文의 底本만 알았지 賈公彥 疏의 底本은 알지 못한 것이다.<sup>24)</sup>

23) 고전문헌 목판본의 표면에는 유래와 층위가 동일하지 않은 텍스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올바른 교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층위를 다시 분리하여 그 유래를 밝히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의 표면 아래 잡복해 있는 ‘심층구조’를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심층구조’란 텍스트의 겉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의 구성체를 의미한다.

24)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自宋人合『正義』、『釋文』於經、注，而其字不相同者一切改之使同，使學而不思者白首茫如，其自負能校經者分別又無真見，故三合之注疏本似便而易惑，久爲經之賊而莫之覺也。如近者顧千里

이 단락에서는 顧廣圻가 “다양한 층위의 底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 했다고 비판한다. 가령, 段玉裁는 “四郊”로 쓴 底本과 “西郊”로 쓴 底本을 모두 인정한 바탕 위에서 “立說의 시비판정”을 통해 가장 올바른 텍스트를 추구하였는데, 顧廣圻는 孔穎達의 底本만을 인정하여 “西郊”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鄉大夫/卿大夫”的 경우는 두 사람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段玉裁는 “卿大夫”가 宋代 판본의 謌字라고 판단한 顧廣圻와 달리 賈公彥·孔穎達의 원래 底本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 9) 아홉 번째 단락: “그 올바름을 찾아라[求其是]”

이 단락에서는 底本의 시비를 명확하게 판정한 후 올바른 글자를 도출하는 방법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經典의 경우는 오류가 없는 텍스트도 올바르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만약 謌誤가 있는 텍스트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이는 經典에 대하여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다양한 底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각 底本이 틀린 점을 분석하여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올바른 하나를 회복할 수 있다. 東原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거 없는 판단[鑿空]의 양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글자만 보고 대충 뜻을 짐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글자를 맹목적으로 따라서 오류를 전달하는 것이다.”

글자를 보고 대충 뜻을 짐작하여 풀이한 의미는 원래의 의미가 아니며, 잘못된 글자를 맹목적으로 따라서 전달한 오류는 본래의 經典이 아니다.

예를 들어 孔穎達은 “虞庠은 나라의 西郊에 있다[虞庠在國西郊]”고 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의거한 經典이 그 본래의 經典이 아닌 경우이다. 그런데 이를 따라 자신의 의견을 세우게 되면, 그렇게 풀이한 뜻 역시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經文이 잘못되지 않은 경우도 글자를 보고 대충 뜻을 짐작하게 될까 두려운데, 하물며 잘못된 글자를 맹목적으로 따라 전하는 經典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孔穎達은 唐代의 謌誤를 따른 傳本을 목수하였다. 顧廣圻는 또 孔穎達이 목수한 바를 목수하면서, 옛 傳本에 올바른 문자가 있어 의거할 만한데도 믿지 않는다. 이는

---

校祭義疏, 改四郊爲西郊, 孔氏之底本得矣, 而遂欲改注之四郊爲西郊, 且云王制經、注之西郊不誤, 是知孔氏之底本而不知鄭氏之底本也。鄭氏之底本失, 則經之底本亦失, 而周制四郊小學遂不傳矣。千里又竊余彌時辨劉端臨、盧紹弓據二疏改經鄉大夫爲卿大夫之說, 著於禮記考異, 而未知其詳, 且又因宋本之謌字謂賈作鄉不誤, 是又知經之底本而不知賈疏之底本也。”

孔穎達을 믿고 鄭玄을 배척하는 것이고, 鄭玄을 배척하는 것은 經을 배척하는 것이니, 經典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무릇 經을 교감하는 사람은 그 올바름을 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뿐이다. 「祭義」의 注에서 “四郊에 세운 虞庠을 四學이라 일컫는다[四郊虞庠謂之四學]”는 해설을 바탕으로 「王制」 經·注의 “西郊”를 “四郊”로 바로잡고, 『大戴禮記』·王肅·劉芳·皇侃·崔靈恩·杜佑 등의 諸家와 비교해보면 합치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孔穎達 疏의 오류를 비판하는 것이 이른바 “그 올바름을 찾아낸다”는 의미이다.

교감에 종사하는 여러 동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sup>25)</sup>

段玉裁는 여러 가지 底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각각을 분리하여 재구성하는 교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段玉裁에게 교감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 올바름을 찾는 것”이다. 여러 가지 底本을 재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글자를 찾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段玉裁의 주장을 고찰해보면, 그 교감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주로 고전문헌, 특히 經典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에서는 “校書”보다 “校經”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顧廣圻가 전문 校勘家라면 段玉裁는 고전학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段玉裁의 지향점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는 段玉裁의 교감이론이 經典 교감에 특화된 이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經文·注·疏·『經典釋文』 등 여러 텍스트의 충위가 가장 뚜렷하면서도 매우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 텍스트가 바로 經典이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유통된 문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다른 문헌에 비해 다양한 底本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고전문헌 가운데 段玉裁의 교감이론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經典인 것이다.

25) 段玉裁, 2008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經韻樓集』 卷2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知之者所以辨其非而歸於一是也。東原師云，鑿空之弊有二。其一，緣辭生訓也。其一，守譌傳繆也。緣辭生訓者，所釋之義非其本義。守譌傳繆者，所據之經併非其本經。如孔氏虞庠在國西郊，所謂所據之經非其本經也。而緣之立說，則所釋之義非其本義矣。經文之不誤者，尙懼緣辭生訓，所釋非其本義，況守譌傳繆之經耶。孔氏守唐時譌繆之本，千里又守孔氏所守，至於古本之是者確有可據而不之信，信孔以誣鄭，誣鄭以誣經，不大爲經之害也哉。凡校經者，貴求其是而已。以祭義注四郊虞庠謂之四學正王制經、注之西郊爲四郊，考之大戴禮、王肅、劉芳、皇侃、崔靈恩、杜佑諸家而無不合，以批孔氏之疏繆，所謂求其是也。執事以爲何如。”

經典은 절대적인 진리를 담은 문헌이다. 그러므로 校勘家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經典을 교감할 때는 顧廣圻의 ‘不校校之’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立說의 시비판정”을 통해 올바른 經典 텍스트를 제공하는 작업을 멈춘다면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 段玉裁가 顧廣圻의 극렬한 비판에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절대적 진리를 제공해야 하는 經典이 段玉裁가 상정한 교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 3. 段玉裁 교감이론의 특징

지금까지 段玉裁가 자신의 교감이론의 핵심을 정리한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의 분석을 통해 段玉裁의 교감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단락에서는 段玉裁 교감이론의 특징 및 형성 배경을 1) 학자적 정체성, 2) 판단의 의거, 3) 이론적 지향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이 나오는 데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논쟁의 또 다른 주인공 顧廣圻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段玉裁의 교감이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학자적 정체성

段玉裁는 고전학자였다. 특히 언어학적 측면에서 經典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개발한 經學家였다. 전문 校勘家인 顧廣圻과 달리 段玉裁에게 校勘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經典을 더욱 완정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때문에 段玉裁는 校勘의 대상을 자신이 교감하고자 하는 문헌으로 한정할 수 있었다. 段玉裁가 戴震의 학술을 평가하며 말한 바와 같이 스스로도 “넓게 아는 데에 힘썼다기보다는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에 힘썼다.”

經典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교감하면서, 段玉裁는 경전의 심층구조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의미맥락을 비교적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經典 텍스트의 “시비를 판정하여 하나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定是非, 求一是]”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를 顧廣圻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전문 校勘家인 顧廣圻가 교감을 진행한 대상은 先秦부터 唐宋代까지 經·史·子·集에 속한 다양한 성격의 문헌이 섞여있다. 문헌의 생성시대와 특성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顧廣圻로서는 段玉裁가 말한 바와 같이 “立說의 시비”를 판정하여 “하나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顧廣圻는 오랜 교감 경험을 통해 “하나의 올바름”이라는 것이 校勘家의 독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체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顧廣圻가 구상한 최선의 교감방법은 여러 가지 텍스트를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주체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 2) 판단의 의거

段玉裁와 顧廣圻는 문자를 교감하면서 판단의 의거로 삼은 기준도 동일하지 않았다. 顧廣圻는 다른 무엇보다도 宋本을 중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宋本이 어떻게 그러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긍정적’ 오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문헌을 교감하면서 顧廣圻는 통행본에 대한 宋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얻었다. 顧廣圻의 판단으로는, 당시 통행본의 폐해가 宋代 목판인쇄의 흥기 아래 교감이라는 명목으로 기준의 텍스트를 별 다른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고쳤던 데에 있었다. 이러한 妄改로 인해 校勘家의 작업 분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물론 宋本의 경우도 오류가 많았지만 통행본에 비해서는 妄改가 적어 오류의 흔적을 찾아내기가 비교적 용이했다. 잘못을 숨기기 위한 자의적인 교감에 오염되지 않아 오류의 흔적을 비교적 명확하게 남긴 宋本이 顧廣圻의 입장에서는 소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先秦 문헌, 특히 經典을 집중적으로 교감의 대상으로 선택했던 段玉裁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段玉裁 역시 宋本을 중시하긴 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하나의 올바름”을 추구하였던 段玉裁에게 宋本과 같은 판본적 근거보다는 鄭玄의 해설과 같

은 언어적 근거가 훨씬 중요했다.

段玉裁의 평가에 따르면, 鄭玄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鄭玄이 가장 훌륭한 부분은 經典의 의미맥락과 언어적 관련성을 살펴서 시비를 판정하는 능력이다. 段玉裁는 鄭玄의 이러한 판단에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sup>26)</sup>

顧廣圻가 ‘校勘’으로 오염되기 이전의 문자 텍스트에 도달하기 위해 송본을 징검다리로 삼았다면, 段玉裁는 ‘校讎’를 통해 문자로 정착한 문헌의 원시 텍스트를 복원하기 위해 鄭玄을 지렛대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 3) 이론적 지향점

段玉裁가 복원하고자 했던 것은 문자텍스트가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원시 텍스트였다. 원시 텍스트는 구술·암송·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문자 텍스트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段玉裁는 문자 텍스트가 기록하고 있는 음성적 흔적에 더욱 집중한다. 段玉裁가 『說文解字』를 연구하는 데에 자신의 학문적 생애를 바친 것도 문자에 내재된 소리의 요소를 추적하여 經典을 더욱 완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였다.<sup>27)</sup> 문자 텍스트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원시 텍스트를 지향했던 段玉裁의 입장에서는 비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텍스트를 찾지 못하더라도 校勘者の 식견과 판단에 의거하여 이상적인 원시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校勘의 본질인 것이다.

반면, 顧廣圻는 宋代 목판인쇄가 흥기한 후 교감이라는 명목으로 훼손되고 오염되었던 텍스트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감의 목적이라 생각하였다. 때문에 교감으로 복원할 수 있는 텍스트는 문자 텍스트, 즉 필사본 시대의 텍스트로 한정한다. 顧廣圻의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글자가 되었든 잘못된 글자가 되었든 문자로 남아 있어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소리나 언어와 같은 문자화

26) 김효신, 앞의 논문 「2.1.3. 원시 텍스트에 대한 鄭玄의 인식」에서 段玉裁가 파악한 鄭玄의 학술적 의의를 자세히 다루었다.

27) 盧文弨, 1981 「說文解字注序」『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참조.

되지 않은 근거는 단지 추측을 통한 교감일 뿐, 본질적으로 妄改와 다르지 않다  
는 것이 顧廣圻의 생각이었다.

주제어 : 段玉裁, 校勘, 「與諸同志書論校書之難」, 是非, 底本, 立說, 顧廣圻,  
不校校之

투고일(2017. 9. 1), 심사시작일(2017. 9. 6), 심사완료일(2017. 9. 18)

〈Abstract〉

The Textual Criticism Theory of Duan Yucai  
– a Analysis of “a Letter to the Comrades on the Difficulty of  
Textual Criticism” –

Kim Hyo Shin \*

Duan Yucai(1735~1815), a famous classicist in the Qing Dynasty, recognized that the Chinese Classics could be understood on the basis of ancient Chinese phonological and character system, furthermore made a lot of significant revisions on the Confucius Classics by means of the phonological and graphonomy knowledge. Especially, he concentrated to find the traces of proto-texts which are hidden under surface of the extant versions.

But his revision works encountered sharp criticism of Gu Guangqi(1766~1835) who was a professional reviser of Chinese Classics. Gu criticised that the outcomes of Duan's revision did not only have the authenticity of proto-texts, but also they obliterated possibility of diverse comprehensions of the classical texts as a result.

As Duan had a series of dispute about methodology of textual criticism with Gu, he felt a necessity to systematize his theory about revision of classics and wrote a significant essay on Chinese textual criticism in 1808, that is “a letter to the comrades on the difficulty of textual criticism”.

In this essay, he argued that textual criticism should pursue to distinguish right and wrong of meanings beyond various versions,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extual criticism to judge the sole right meaning. To attain this end, he suggested a analytical methodology of the Confucius classics which consisted in original texts(經), first annotation(注), and second annotation(疏). Duan found out a lot of confusions of the texts had arisen by this three level structure. In order to revise the errors on the

---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fucius texts, he insisted, we should separate the level and reconstruct the original texts by means of reviser's insight.

**Key Words** : Duan Yucai, Gu Guangqi, textual criticism, the Confucius classics, three level structure